

〈제 742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 제공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최근 저탄소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K-그린카드 V2’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서비스’가 탑재된 ‘K-그린카드 V2’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보행·자전거 등)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 최대 30%까지 대중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교통비 인상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K-그린카드\_V2를 출시했다. 칼로리를 소비해서 건강 챙기고, 환경도 지키고, 더불어 알뜰교통카드 혜택까지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ESG리딩뱅크’를 목표로 녹색금융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노인복지시설 배식 봉사활동 '훈훈'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지난 11일 순천시 조곡동에 위치한 조곡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무더위 속 장마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초복을 맞아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에게 전복삼계탕 200인분을 대접했다. 삼계탕 배식 후에는 떡과 주전부리, 부채 등을 전달하며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라는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번 배식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나눔 봉사의 기업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nilbo.com/70962185635>

## 광주신세계

### ◆무등산 입석대 모티브 '비겐디' 티셔츠 특별 판매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신관 지하 1층에 위치한 MZ세대 스트리트 감성 아웃도어 브랜드인 비겐디에서 무등산 주상절리 입석대를 모티브로 티셔츠를 특별 제작해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비겐디는 '비겐 뒤'라는 한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스트리트 캐주얼 룩과 아웃도어 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개념의 아웃도어 브랜드와 다른 스타일을 제안한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975559>

## 금호타이어

### ◆‘EV 타이어’ 캠페인 통해 혁신 기술력 뽐낸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이달부터 ‘전기차용 타이어도 역시 금호타이어’라는 컨셉으로 ‘EV Partner, KUMHO TIRE’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탄생을 알리는 이번 광고는 오랜 기간 전기차 전용 타이어에 대한 금호타이어의 고민을 담아 풀 3D 작업으로 광고의 완성도를 높였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리더 브랜드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이번 광고캠페인은 ‘전기차용 타이어도 역시 금호타이어’ 각인을 위해 짧고 강력한 비주얼로 표현했다”라면서 “금호타이어는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차세대 전기차용 OE 타이어 개발을 하고 있으며, 시장 변화의 화두를 ‘전기차’로 전환 시키기 위해 이번 광고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30호점 완공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과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30호점을 완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은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를 통해 금호타이어는 수도권에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학습 도구와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학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금호타이어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희망의 공부방 지원과 교육기부사업에 힘쓰고 있다”며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 ◆생명 나눔 헌혈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최근 헌혈의집 충장로센터에서 광주세무서와 생명나눔을 위한 헌혈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단체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기적 헌혈 동참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에 협력기로 약속했다.

나향미 광주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내 혈액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 임직원이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10여 명의 광주세무서 임직원은 협약식 이후 직접 헌혈에 동참했다.

## 무진기연

### ◆승달장학금 2천만원 기탁



무진기연(조성은 대표이사)은 지난 13일 (재)무안군승달장학회에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광주 대표 글로벌 강소기업인 (주)무진기연은 에너지플랜트 및 원자력기술 개발의 원가절감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진기연(조성은 대표이사)은 “무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 오텍캐리어

### ◆디지털 유통대전에서 'AI 무인 솔루션' 기술 선보여



오텍캐리어가 지난 6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3 디지털 유통대전 (Retail Tech Show 2023)’에 참가하여 AI 무인 솔루션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온라인 시장 확대에 의해 위축되는 오프라인 시장의 대안으로 모듈형 컨테이너 방식을 활용한 AI 무인 솔루션 ‘픽앤탍’ 3종(냉동, 냉장, 상온)과 함께

오텍캐리어의 전국 유지보수와 연결된 원격 예지정비 시스템, 신규 개발 중인 도어형 쇼케이스 등을 선보였다.

오텍캐리어 관계자는 “2년 연속 디지털 유통대전에 참가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오텍캐리어의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AI 무인 솔루션 기술 확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미래의 콜드체인과 매장이 원하는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제습기 출시



오텍캐리어가 강력한 제습력을 갖춘 제습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리어 제습기 신제품은 제품 내부 습기로 인한 곰팡이 번식을 막아주며, 내부 건조 기능과 열교환기 UV-C LED 살균 기능을 장착하여 안전한 제습 효과와 뛰어난 위생 기능을 갖췄다.

오텍캐리어 관계자는 “제습기가 사계절 생활가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강조한 설계로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전기로 부담까지 낮추어 사용에 부담이 없는 캐리어 제습기 신제품과 함께 소비자들이 올여름을 쾌적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해양에너지

### ◆도시가스사 경영연구회 남부권 정기협의회 개최



해양에너지(정회 대표이사)는 최근 광주 벤틀리 호텔 대연회장에서 ‘경영연구회 남부권(인사·노무) 2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 안건으로는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진행사항 공유’ 및 ‘각 사별 인사·노무 Agenda’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회원사들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단체관람을 진행했다.

해양에너지(정회 대표이사)는 “경영연구회 남부권 정기협의회는 도시가스사들의 공통된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 생각한다”며 “도시가스 회원사분들을 문화도시 광주에 초대해 광주비엔날레를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 〈제1612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판소리의 멋과 이해 · 강사 : 권하경 (무형문화재)

1612회 금요조찬포럼은 권하경 명창을 초청하여 「판소리의 멋과 이해」를 주제로 우리 음악인 판소리와 남도민요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남도민요는 모두가 입창(선소리)에 해당하나 소고를 친다든가, 장구를 직접치면서 부르지는 않고 반주자가 따로 있다. 발성법이나 시김새는 판소리와 비슷하여 목을 눌러내는 발성법을 사용한다. 시김새는 대개 계면조로 일관하며 시나위청에 가깝다.

판소리는 특정한 이야기 줄거리가 있어서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많은 표현력이 필요하지만 잡가나 민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개 평계면성(平界面聲) 내지는 시나위청으로 흥겹게 소리한다. 대표적인 민요로 진도아리랑이 있다.

진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전라남도 일원에서 유희요로 즐겨 불리어 지고 있는 민요이다. 진도 아리랑은 가히 한국의 민요, 또는 남도 민요의 정수라 할 수 있는데, 그 예술성으로 말미암아 널리 애창되어 왔고, 특히 민속음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진도 지방을 그 전승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어들였다. 전라도가 육자배기를 음악선율의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육자배기>목을 선율로 사용한다.

진도아리랑에는 두 가지 설화가 있는데 첫째 두 남녀가 굴재에서 서로 만나는 것을 보고 지나던 초군들이 ‘아애랑 설이랑 아라리가 났네’하고 노래하던 것이 <진도 아리랑>이 되었다. 둘째 주인집에 예쁜 처녀가 머슴에게 반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부모에게 들켜 둘은 그 길로 문경새재를 넘어 진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충각을 기다리던 처녀는 충각이 양가집 규수를 데리고 돌아온 것을 알게 되어 이내 서럽게 울면서 노래했는데 그것이 진도아리랑이다.

판소리란 한 사람의 창자(唱者)가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唱), 아니리(말)로 엮어 발림(몸짓)을 곁들이며 구연(口演)하는 창악적 구비서사시(口碑敍事詩)이다.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였던 구비서사문학의 독특한 발전형인 동시에, 한민족이 지녀온 갖가지 음악언어와 표현방법이 총집결된 민속악의 하나이며, 현장 연희에서는 일부 연극적인 표현요소까지도 구사하는 종합적인 예술이다.

판소리는 전통적으로 광대라고 불려진 예능인들에 의하여 가창, 전승되어 왔다. 그들은 때로는 농촌이나 장터에서 노래했고, 때로는 양반 부호들의 내정(內庭)에서 연희하기도

## II. 광주경충 소식

하였다. 판소리사의 진행과정을 통해 청중의 구성은 점차 상향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개괄하건대 판소리는 평민예술의 바탕을 지니면서도 탈춤, 남사당놀이, 등과 달리 다양한 계층의 청중들을 포용할수 있는 폭과 유연성을 지녔다고 하겠다. ‘판소리’라는 말의 어원과 의미에 대하여는 아직 일치된 결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 음악인 민요와 판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구전되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사무국 일지 (07.10 ~ 07.14)

07.11 (화)	● 산업안전공단 재정지원서면심사	07.13 (목)	● 전국경충 부회장 회의
07.12 (수)	● 노사정한마음 대회	07.14 (금)	● 1612회 금요조찬 포럼

## 1. 경제 동향

### ◆ 경총, 「2023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결과」 발표 (7.9)

○ 경총이 전국 5인 이상 645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2%가 ‘올해 하계휴가 실시’라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9.8%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답변.

\* 본 조사에서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일정 시기를 지정, 별도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 것임.

① (하계휴가 일수)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7일로 집계.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이 57.4%, 300인 미만은 ‘3일’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높게 조사

② (하계휴가 실시기간)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제조업은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휴가 실시’가 77.5%로 가장 높게 집계

③ (하계휴가비 지급계획)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58.4%가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2022년(57.7%)에 비해 소폭(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④ (연차휴가 사용 촉진)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62.2%로 전년(58.1%)대비 4.1%p 증가. 규모별로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기업 모두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년보다 증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22년 → ’23년) : [300인 이상 기업] 54.4% → 55.9%(1.5%p) [300인 미만 기업] 58.6% → 63.0%(4.4%p)

⑤ (하반기 경기 전망)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이 54.9%로 가장 높았음.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⑥ (하반기 투자 계획) 하반기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에서 하반기 투자가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6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하반기 투자가 상반기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25.2%, ‘확대’는 11.1% 순으로 나타남.

### Ⅲ. 노동경제동향

#### ◆ 경총,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7.10)

(고용정책팀 02-3270-7322) \* 보도자료는 경총플라자(www.kefplaza.com)에 게시

○ 경총이 전국 30인 이상 1,047개사(응답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원한다고 답변함.

① (선호하는 계속고용 방식) 정부가 기업에게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됨. ‘정년연장’은 25.0%, ‘정년폐지’는 7.1%에 불과함.

②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 위한 정부지원책)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집계됨(복수응답). 그 외 응답은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증가시 세제혜택’(33.0%), ‘고령인력에대한 인건비직접지원확대’(31.0%) 등이 있음.

③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실태)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변함(복수응답). ‘정년연장’은 26.3%, ‘정년폐지’는 12.8%에 그침.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응답 기업의 74.5%

④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이유)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66.4%는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답변함. 그 외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라는 응답은 6.0%로 집계됨.

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응답 기업의 67.1%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변함(제도 인지 기업). 제도 인지 기업의 48.8%가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 경총,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7.12)

### Ⅲ. 노동경제동향

○ 7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7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힘.

- 경총은 우리 세계 가운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부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우리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들은 더욱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

① (세제 합리성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경총은 세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등을 제안

\* '임금 상승' 인정 기준 상향(현 총급여 8천만원 미만 → 1.2억원 미만), 투상세 과세산식에 '배당' 추가

②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과제) 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現 50%→25%)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現 24%→22%), △R&D 등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제안

○ 경총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되어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

#### ◆ 한국은행, 「2023년 5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7.7)

○ 2023년 5월 경상수지는 19.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5월(38.0억달러) 대비 흑자폭이 18.7억 달러 축소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42.1(23.1)→ △5.2(2)→ 1.6(3)→ △7.9(4)→ 19.3(5)

※ 2023년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34.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022년 1~5월 누적 경상수지 (188.1억달러 흑자) 대비 경상수지가 222.5억 달러 감소

- 상품수지는 18.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29.5억달러 흑자)대비 흑자 규모가 11.3억 달러 감소

### Ⅲ. 노동경제동향

- 서비스수지는 9.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5억달러 적자)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4.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3.1억달러 흑자)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
- 이전소득수지는 3.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3.2억달러 적자)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2023년 5월 금융계정은 26.5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 통계청, 「2023년 6월 고용동향」 발표 (7.12)

○ 2023년 6월 취업자는 2,88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3천명(1.2%) 증가

※ 취업자는 2021년 3월(31만 4천명) 이후 28개월 연속 증가.

-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6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 6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 8천명) 등의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건설업(△6만 2천명), 운수창고업(△3만 9천명), 부동산업(△3만 2천명) 등의 취업자는 감소

※ 도매 및 소매업은 2019년 6월(△4만명) 이후 49개월 연속 감소

- (연령별) 60세 이상(34만 3천명), 50대(7만 1천명), 30대(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 했고, 20대(△10만 3천명), 40대(△3만 4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

○ 고용률(15세 이상)은 63.5%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실업자는 8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9.1%) 감소

- 실업률은 2.7%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실업률은 6.3%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Ⅲ. 노동경제동향

- 전체 체감실업률\*은 8.9%로 전년동월대비 1.7%p 하락했고,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17.0%로 전년동월대비 2.6%p 하락

\*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개념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명( $\Delta 0.7\%$ )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5천명( $\Delta 11.2\%$ ) 감소
  -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7만 5천명 증가한 224만 5천명을 기록했고, 구직단념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 1천명 감소한 34만 3천명 기록

#### ◆ 한국은행, 「2023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7.13)

- 2023년 6월 수출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8% 하락(전년동월대비 14.7% 하락)

※ 원/달러 평균환율(원) : 1,328.21('23.5월)→ 1,296.71('23.6월) [전월대비 2.4% 하락]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3.5% 하락(전년동월대비 14.1% 하락)

- (공산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8% 하락(전년동월대비 14.7% 하락)

- 2023년 6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3.4% 하락(전년동월대비 15.7% 하락)

\* 두바이유가(월평균, 달러/bbl) : 74.96('23.5월)→ 74.99('23.5월) [전월대비 보합]

## 2. 노사 동향

####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난항 지속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은 7. 11 제12차 전원회의에서 4차 수정안\* 제시(제13차 전원회의는 7. 13 개최 예정)

※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9,740원을 제시하고, 근로자위원회는 11,140원을 각각 제시

- 경총 등 사용자위원회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주요 선진국 중 최상위권 (비교가능한 OECD 30개국 중 8위), ▲최저임금 고율 인상애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등을 지적하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시급 9,740원(전년 대비 1.2% 인상)제시
- 반면, 근로자위원회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시급 11,140원(전년 대비 15.8% 인상)을 제시하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 고수

#### ◆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지속

-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지난 6. 30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

※ 7월 임시국회는 7. 10부터 시작되었고, 회기 종료일은 여야 미합의

- 한편, 경총은 7. 11「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좌장]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발제]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토론]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

### Ⅲ. 노동경제동향

- 한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7. 10 조정회의에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가 아니다’ 라고 판단

\*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5. 8부터 6. 20까지 9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6. 23 충남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 ◆ 고용부는 ‘응시원서에 가족의 직업·학력 요구’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발표

- 고용부는 7. 12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점검 결과\*\* 발표(점검 기간 : 2023. 4. 5~6. 30)

\*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 업종과 상관없이 19세~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점검 결과 : 62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 87건 확인

#### [참고] 채용절차법 위반 주요 사례

위반 항목	위반 사례	고용부 조치
<b>채용절차법 제4조의3 (출신지역 등개인정보 요구 금지)</b> ※위반시500만원이하 과태료	<b>▪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 요구</b> - 홈페이지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신장, 체중, 시력), 가족의 직업·학력 등 기재 요구	<b>과태료 150만원</b>
<b>채용절차법 제11조 제6항 (채용서류의반환등고지)</b> ※위반시300만원이하 과태료	<b>▪ 채용서류 반환 등의 절차에 대해 미고지 하고, 공고를 통해 서류의 미반환 명시</b> - 채용여부가 확정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들에게 미고지	<b>과태료 150만원</b>
<b>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 (채용서류 파기)</b> ※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이하과태료	<b>▪ 채용 결정 이후 채용서류 최대 보관일수(180 일)가 경과했음에도 불합격자들의 채용서류 미 파기</b> - 채용여부 결정 이후 180일 경과시까지 불합격자20여명에대한 지원서류 미파기	<b>과태료 150만원</b>
<b>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b> ※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과태료	<b>▪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b> - 채용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	<b>시정명령</b>
<b>채용절차법 제10조 (채용여부의 고지) 위반</b>	<b>▪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불합격자에게 미고지)</b>	<b>개선 지도</b>